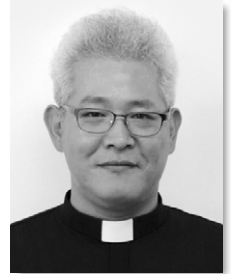


주일의말씀

불공평하신 하느님

정태우 아우구스티노 신부
교구 문화홍보실



요즘 어느 과수원에서 오늘 비유 말씀에 나오는 포도밭 주인처럼 임금을 준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렇게 불공평할 데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늘나라는 이 포도밭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첫 번째 독서에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하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공평하고 옳바르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틀리실 리는 없으니 세상의 방식이 틀린 것이겠지만, 그래도 어쩐지 포도밭 주인이 공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시간 일한 수고와 하루 종일 일한 수고는 엄연히 다른데, 품삯도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포도밭 주인이 누구인지, 또 그 품삯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포도밭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품삯은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이 평생을, 아니 영원토록 주님께 봉사한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생명을 받을 만한 공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시니, 원래 우리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 일을 거들게 하시는 것은 필요해서서가 아니라 우리가 상을 받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으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애초에 도움도 되지 않는 일꾼들에게, 그 일한 만큼이 아니라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품삯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듯이 간간하게 계산을 하셔서 딱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만큼만 상을 치르신다면 어떨겠습니까? 우리 죄와 공로를 주님께서 낱알이 헤아리시면 우리 중에 누가 주님 앞에서 감히 “내 상을 더 쳐 주시오.”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충실하지 못하고 게으름 피운 것과 순종하지 않고 고집 부린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루 종일 놀다가 해질 녘에 겨우 한 시간 일한 것조차도 기특하게 여기시고 천국의 복락으로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식으로 “공평”하지 않으신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할 일입니다.

사람이 바랄 수 있는 제일 큰 영광은 하느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을 일하든 종일 일하든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이미 더 바랄 것이 없는 복인데, 주님께서는 죄만 많고 무익한 종인 우리가 봉사를 했다고 상까지 주십니다. 이 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기까지 하셨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불공평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빚이라도 지신 것처럼 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처럼, “고생은 내가 더 했는데...”, “저 사람은 한 일도 없으면서...”하고 말입니다. 우리와 같이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좋은 주님, 종을 친구로 대해 주시고 분에 넘치게 갚아 주시는 주님을 찬미합시다!

생명의말씀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마태 20,15 참조)

제1독서 : 이사 55,6-9 제2독서 : 필리 1,20ㄷ-24,27ㄱ 복음 : 마태 20,1-16.

천지의 창조주

문화홍보실

세상 사물은 있다가 없다가 하는 무상한 것입니다. 산이나 바다도 수십억 년 전에는 없었고, 장차 또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영원히 계시고, 스스로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느님께서 있다 없다 하는 무상한 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도록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재료나 도구가 필요 없으신 하느님께서 오직 당신의 뜻과 말씀만으로, 아무 것도 없는 데서부터 만물을 지으십니다. 시간도, 공간도, 우주의 모든 법칙도 하느님께서 지으시고 또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면 큰 은혜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물론이고,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고민할 때, 또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때 곁에 있어 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은혜는 평생 잊을 수 없고, “그 때 그분이 없었다면 나는 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살아있거나 하겠는가?”하고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즉, “하느님 아버지, 당신 덕분에 제가 있게 되었고 또 오늘 이렇게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말은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쓸모가 있고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착하신 하느님께서 나쁜 것, 못 쓸 것을 하나도 만들지 않으십니다. 심보가 고약한 우리가 하느님께서 만드신 좋은 것들을 나쁜 목적에 쓰거나 망치거나 하는 것이지요. 하찮은 모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원하시기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모기보다 훨씬 귀한 이 ‘나’라는 존재는 어찌다 보니 우연히 생겨나 세상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정하신 좋은 뜻에 따라 생겨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 나를 좋게 보시고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나를 만드셨겠습니까?

“천지의 창조주”라는 말은,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나게 하시고 좋은 것들을 두루 갖추어 주신 아버지,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아버지, 나를 귀엽게 여기시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보아 주시는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와 찬미입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박성규 엘리시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25주일

입당성가

286 순교자의 믿음

화답송

◎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 게 가까이 계시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197 나그네 양식이요

영성체송

주님, 당신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파견성가

26 이끌어 주소서

영성의 향기

:: 유혹은 왜?

유혹은 그 자체로 죄가 되거나 항상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유혹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선택한 결과를 위해 안배하시는 주님께서서는 유혹도 우리가 성장하는데 쓸모가 있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유혹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만큼 쓸모가 더 있고, 주님께 대한 굳은 믿음과 확고한 의지로 유혹에 저항할 수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한 순간에 맺히지 않습니다. 모든 열매는 천천히 익어갑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혹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유혹을 두려워하거나 유혹을 허락하시는 하느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늘 곁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끈기 있게, 또 용감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 주셨듯이 우리 사람은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 교구사목국 권가타라나 수녀 -

교부들의 지혜

겸손과 희망의 두 축



관상의 첫 번째 단계는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그분의 마음에 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성생활의 전부는 다음의 두 가지 위에서 회전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괴로움을 느끼는데 그 슬픔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줍니다. 한편 하느님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 자신은 회복되고 성령의 기쁨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관상에서 두려움과 겸손을 얻고, 하느님에 대한 관상에서 희망과 사랑을 얻는 것입니다.

- 성 베르나르도 아베스의 강론에서 -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9.20(화)은 故 서인석(바오로) 신부 6주기입니다.

모임/행사

정하권(플로리아노) 몬시뇰

사제서품 60주년(회경축) 기념미사

몬시뇰을 뵙고자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9.26(월) 11:00

장소: 천주교마산교구 주교좌양덕성당

문의: 백남해 신부, (010)2560-4354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9.19(월) 14:00,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내용: 정기총회 및 임원개편

전례의 향기 2집 판매합니다.

가톨릭미용인회 빛 모임

일시: 9.26(월) 20:30, 요안나미용학원

문의: (018)560-3086 / (010)8397-9783

교구100주년 및 여성교육관 30주년기념

대주교님 감사미사 및 심포지엄

일시: 10.15(토) 13:30~17:00, 신학교 대강당

장소: 남산동 유스티노교정 성당 및 대강당

부대행사: 축하, 오페라, 하모니카, 창작사진전시회

성소/피정

마리아 영성피정(성체형식, 미사안수)

일시: 9.21(수) 13:00~17:00, 지도: 강요셉 신부

문의: 삼덕성당, 422-6691

희망기도 피정 (80명 선착순)

일시: 매일 첫째 일요일 13:00~17:30(미사로 끝남)

장소: 달빛골 교육원(달서구 상인동 삼성교회 옆)

지도신부: 최봉도, 참가비: 1만 원

문의 및 신청: (011)532-2879 / (054)336-4831

성경동독과 함께하는 거룩한 독서

일시: 매주 화요일 18:00~18:30

장소: 대구파티마병원 수녀원 옆 찻마루

대상: 젊은이 남녀 누구나

문의: (010)8519-3431 / 313-3431

작은예수회 현리산 피정

일시: 9.23(금)~25(일), 2박3일

문의: (016)646-0583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재속3회 지원자 모집

모집기간: 7월~9월 말

월모임: 매일 넷째 화요일 09:00~17:00

장소: 교구청 꾸르실로 교육관

자격: 55세 이하로 성모님을 닮고자하는 분

문의: (051)634-4820 / (010)6711-4819

교육/모집

제10기 대구대교구 가톨릭어머니학교 개강

일시: 9.29~11.3(매주 목요일) 09:30~14:1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신청비: 10만 원

문의: 743-7010 / (010)6669-9746

파스카청년성서모임 팀 모집

단계: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255-1582(화~토, 14:00 이후)

제10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 · 어학연수

기간: 3차 9.28(수) 출발 (8주,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지성인을 위한 신앙 강좌(660-5105~6)

일시: 9.24(토) 10:00~12:30, 마감: 23일(금)

장소: 남산동 신학대학(참가비: 5천 원)

주제: 성경인물의 여성학적 해석(임다리아수녀)

10.29(토) 예정강좌: 배 이사악 수녀

대구가톨릭대학교 TESOL 5기 모집

설명회: 10.1(토) 15:00, 접수: 9.24(토)~

회화전담강사지원가능, 펜실베이니아대학재휴

미국유학 시 학점인정 1년 내 석사학위

무료어학연수기회, 신부님 추천장학

문의: 526-0111(http://tesol.cu.ac.kr)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 ·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생 모집

일시: 9.20~12.13(매주 화요일) 09:30~18:00

대상: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문의: 가톨릭상담교육센터, 253-1401

뿌에리칸도레스 합창단 17기생 모집

대상: 초등학교 3학년~6학년까지

문의: 255-4847

대구파티마병원 13차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신규 교육

일시: 9.26(월)~27(화), 본 병원 3층 제1강의실

선착순: 30명, 교육비: 2만 원

문의: 940-7059, 7415(입금 후 전화접수)

대구은행, 253-13-000810, 이해숙

이흥구 스테파노의 이콘(icon) 강좌

내용: 기초에서 완성까지 실기 및 이론수업

주최: 한국가톨릭이콘연구소

지도신부: 김도을 요셉대구가톨릭미술가회 지도신부

장소: 홀리아트갤러리 & 주노아트갤러리

문의: (010)3588-5252

양업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원서교부 및 접수: 9.19(월)~28(수)

문의: 교육지원실, (043)260-5076,78

http://yangeob.hs.kr

우편접수는 마감날짜 소인 유효함

선교훈련 시그마 코스 18기

일시: 10.7(금)~9(일), 회비: 16만 원

장소: 충북 청원 엠마우스 피정의 집

대상: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교우(개인 또는 단체)

문의: 미래사목연구소, (031)985-2835

직업재용

나자렛노인전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대상: 영천시 거주자 요양보호사(자격증 소지자)

문의: 나자렛노인전문요양원

(054)334-2006~7 / (010)6384-1935

안내

교구법원 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혼인에 대해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김영희(수산나)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1대리구 성소후원의 월례미사	9월 19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한티성지후원의 월례미사	9월 19일(월) 오전 11시	한티순교성지
2대리구 성소후원의 월례미사	9월 19일(월) 오전 11시 30분	2대리구청-범여성당	기두선교단 월례미사	9월 19일(월) 오전 11시 30분	계산문화관 3층 선교센터
3대리구 성소후원의 월례미사	9월 19일(월) 오전 11시	3대리구청-월성성당	공소후원의 미사	9월 24일(토) 오전 11시	남산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의 미사	9월 19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2484 익스프레스

칠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약기(바오로) 011-514-3855

밝은 눈 안과

원 장 전문의 임흥식(라파엘) 장주희(엘레나)
당일수술 · 퇴원 초음파백내장 · 라식수술

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맑은 편 654-9660

지하철 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 전문의, 원장: 정순우 (요셉)

범어내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상가 2층

☎ 755-5572 (자하철범여역6번출구)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253-7476

방 프란치스코 (교구님 우대 할인)

중앙내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이연재 맥 의원

(하지정맥류 전문병원)

원장: 이연재 (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 방향 200m

서정의 피부과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박의현 구심내과 심장전문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위치: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752-9797

더블유 W Thyroid-Breast Clinic

갑상선·유방 전문 (갑상선, 유방 검사 및 수술)

전문의 2인 진료 (여의사)

원장 서수진(헬레나), 안재석

대구은행역 2번출구 (대구은행 본점 건너편)

☎ 744-6075 www.w-clinic.kr